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하권 5:14-17	제2독서	티모테오2서 2:8-13	복음	루카 17:11-19
--------	------	---------------	------	---------------	----	-------------

◎ 말씀 < 감사하여라 >

오늘 복음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짧고 망각은 길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덕이며 은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은총과 받은 사랑과 주변에서 받은 도움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곧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기전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바치셨고(요한6,11),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한11,41). 또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루가22,19).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기쁨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바쳐드리고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환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는 과정을 통해 병이 낫습니다. 하지만 열명의 나병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유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나병환자중에 오직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앞드려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아홉명은 육체적 병은 나았으나 영적 나병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하게 되고 변화되고 축복 속에 살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가난해서,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감사한 일을 헤아려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누구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곳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제일 큰 모습임을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15일(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3,481.00 \$ 1,273.00
10월 16일(수)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685.00 \$ 169.00
10월 17일(목)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45.00 \$ 30.00
10월 18일(금)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2,265.00 \$ 240.00
10월 19일(토)	성 요한 브레비프, 성 이사악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오후 5시	합 계	\$ 8,288.00
10월 20일(일)	연중 제29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2명 성인: 194명
교무금 봉헌자	김재선(9-12월) 김기환(8-12월) 이나숙(7-12월) 엄영호(1-12월) 장애익(10-11월) 정규선(9-10월) 금외주(8-10월) 이민석(8-9월) 임원호(7-8월) 김화연(5-7월) 최이주, 안선미, 류승교, 안기향(9월) 김규철, 김채홍, 구준모, 김상돈, 허형, 김옥륜, 남필레, 양경민, 김규대, 백정심, 황호민, 조용주, 김길록, 엄희수(10월) 영상보(11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복음화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 프란치스코교황 수요 일반접견 교리교육중 발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수요 일반접견 교리교육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사람과의 만남을 전하는 대목을 설명하셨습니다. 교황께선 이 대목은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하느님 말씀과 성사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 장면은 성령이 없으면 복음화도 없다는것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고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필리포스 부제가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말씀선포와 함께 수많은 해방과 치유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는 복음 여정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필리포스를 하느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한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열정을 갖고 길을 나서다가 위험한 사막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내시였고 하느님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귀국 길에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 특히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2,13-53,12)를 읽고 있습니다. 필리포스는 수레에 바싹 다가가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사도 8,30) 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사도 8,31) 하고 대답합니다. 이 권력자는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사람의 대화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껍데기’(겔모양) 안에 있는 그 ‘과즙’(핵심)을 찾고 문자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파스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세례를 청하며,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필리포스를 사막으로 보냈습니까? 누가 필리포스를 이 사람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복음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을 복음 선포로 재촉하시는 분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 선포해야 하고 또한 순교를 통해, 그리고 말로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화의 주인공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느님의 행하심에 자리를 내어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책임있는 사람이 될수있게 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이영숙.데레사의 영육간 건강	정의의모후Pr.	생	대한민국 국민.안보.경제.평화를 위하여	류재순.마리안나
생	강우림.로사, 류현주.보나의 영육간 건강	류재순.마리안나			

◎참 믿음◎

주저앉은 어깨에 얹힌 손길 지켜보고 계셨다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그 손길 느낍니다.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민원기.시몬  
양문숙.마리아 (3구역)

박상채  
박덕실.글라라 (5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목주기도 안내  
일시;매일미사 30분전(목주기도 성월)  
기도담당: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 2.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20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구역부. 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 3.모임안내  
꼬미시움:20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27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4.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5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5.본당 골프대회(주일학교후원 위한)  
일시:13일(일)오후1시(Shotgun)  
오후12시30분까지 도착바랍니다  
장소:Lincoln Hills 참가비:\$85 문의:장현철  
도네이션:김용문(Shoe Bag8개.골프Tee6팩)봉창의  
(Putter\$200)이종만(트로피\$400)엄유경(웨이)  
송돈희(RangeFinder)최응철(물비누.볼마커.골프타  
올10개)이재덕(RangeFinder)이은희(골프Case)  
사무라이(상품권\$100)김상범(\$100)이서향(\$100)  
진엘리사(\$100)익명(\$100)캐런킴(\$100)손상영  
(\$100)배용환(\$100)익명(골프볼3다즌)  
스마일마트(쌀)한인회(\$100) 감사해요
- 6.달력 및 후보광고 신청(2019년도)  
달력 및 후보광고 신청해주세요(신청:사무실)  
광고료:\$150 신청기한:10월13일(일)까지
- 7.교구2차헌금  
일시:20일(일)모든미사  
목적:World Mission Sunday

- 8.감사합니다.  
무료건강검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복지부와  
한인간호사협회,음식봉사와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려요  
도네이션:전비아(혈당측정기외)익명(\$100)  
이재덕(\$200)지정숙(\$100)익명(\$300)  
St.Mary Cemetary & Funeral Center(\$200)  
김양순(\$100)김기환(\$100)주동숙(\$100)  
안나희(\$100).감사해요
- 9.St.Mary 천주교공동묘소 한국Section관련 안내  
최종 설계도가 준비중에 있으며, 장례미사와  
문상예절 관련 비용은 10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문의:고원석.바로로(916-813-4440)
- 10.감사합니다(도네이션)  
어린이놀이터:익명(\$1,000)운구봉사팀(\$200)
- 11.연도 안내(김배국.사도요한)  
일시:18일(금)저녁미사후.성당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가족캠핑 안내 (문의:허호영.헨리)  
일시:19일(토)오후3시-20일(일)오전11시  
일요일 레지오활동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가족성가대 모집  
대상:주일학교학생, 학부모, 청년  
문의:김형일.안드레아 주일학교장

- 식사봉사(이번주);여성회 보조: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지살로메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 폐 플라스틱음료병,캔 수집(친교실-청년회)
- 어린이(학생) 미사시간 변경  
매주 토요일 오후5시(영어미사)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전례봉사	연중28주일(10월13일)	연중29주일(10월20일)	연중30주일(10월27일)	연중31주일(11월3일)
해설	임상일.프란치스코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오민정.크리스티나
제1독서	이순자.요안나	안병훈.스테파노	양경민.안드레아	황호민.안드레아
제2독서	안강순.안젤라	안혜숙.세실리아	양방림.베로니카	황순덕.카타리나
복사	최준우.김규철	장현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7-8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류정임.나송희	임상일.안혜숙.박병수